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전영준¹, 남태우^{2*}

¹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²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The Influence of Smart Phone Dependency on Juvenile Delinquency

Youngjun Jeon¹, Taewoo Nam^{2*}

¹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Governance, Sungkyunkwa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드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매개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온라인·오프라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있어 매개변수로서 스마트폰 의존도와 정서상태를 포함하여 다중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다중매개효과가 문화활동 참여에 따라 완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문화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표본을 구분하여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영향력이 문화활동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er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2018)의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한 결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드에서의 청소년 비행의 증가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의 정서상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였고 문화활동 참여 집단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의존, 매개효과, 다중집단분석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juvenile delinquency, which has increased both offline and online. It is hypothesized that the influence of negative parenting on online and offline juvenile delinquency is mediated through smartphone dependency and personal emotional problems. In addition, the study hypothesizes that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soothes the influence. Using SPSS 22.0 and AMOS 20.0 programs, we conducted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multi-mediation analysis, and a cross-group comparative analysis. The analyses found the significant mediation effect of smart phone dependence and personal emotional problem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juvenile delinquency.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 overall weakens the hypothesized effect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Negative parenting, Smart phone dependency, Mediation effect, Multi-group analysis

1. 서론

청소년기는 성인이 되기 전의 과도기로서 인지적·정서적·생물학적으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며 자아

의식과 현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부적응의 문제에 쉽게 노출된다[1]. 이러한 갈등이 완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울, 불안, 위축과 같은 내재화된 정서문제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정서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아가

*This study was supported by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BK21FOUR *Toward Empathic Innovation: Through Platform Governance Education & Research Programs: #4199990114294*).

*Corresponding Author : Taewoo Nam(namtaewoo@skku.edu)

Received November 12, 2020

Revised December 10, 2020

Accepted December 20, 2020

Published December 28, 2020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음주, 흡연, 폭행, 집단 따돌림, 가출 등 기존의 비행과 더불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청소년 비행의 공간이 확산되어 왔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업무 효율화, 다양한 정보 습득과 같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중독), 음란물 게시, 해킹, 도용, 사행성 도박과 같은 역기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의 전반적 증가 속에서 특히 온라인비행의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2].

청소년 비행의 원인은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된다. Hirschi[3]와 Bandura[4]는 타인의 행동, 행위, 감정을 관찰하고 이를 습득하며 비슷한 성향으로 나아가는다는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 Gottfredson & Hirschi[5]는 비사회적 행동을 예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기 통제력이며 자기 통제력의 형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자녀는 유아기부터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과 가까운 유대관계를 갖기에,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여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검증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지만, 청소년 비행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온라인 관련 비행으로 확산되는 현실을 연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비행의 환경적 맥락으로서 기술사용에 주목한 기존 논문들은 스마트폰 등장 이전부터 일반적인 인터넷 중독의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청소년이 여가를 보내고 네트워킹을 하는 환경적 맥락이 스마트폰 활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이 청소년 비행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전제하에서 스마트폰의 과몰입이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 간의 인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근본적인 원인임은 자명하지만, 청소년 비행의 장(場)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현실에서 부정적 양육이 스마트폰에 대한 지나친 몰입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형성된 스마트폰 과몰입이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은 새로운 연구질문이다. 청소년 비행의 새로운 환경적 요소로서 스마트폰 의존이 미치는 영향(매개효과)을 분석하고, 아울러 개인적 측면의 원인으로 고려되는 정서상태가 부정적 양육과 청소년 비행 간의 인과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몰입과 청소년 개인의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이러한 부정적 행태와 심리가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비행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들이 청소년의 비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본 연구는 그러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원인에도 주목할 필요를 인식하여 문화예술활동 참여가 원인적 요소들의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문화예술 관련된 활동은 개인의 자아 형성, 정서 함양, 사회화 과정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6], 청소년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며[7], 부모의 부정적 양육가능성을 줄인다[8].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개인의 정서문제, 청소년 비행 간의 경로적 관계에 있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미참여 청소년들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의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다단계 회집표집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했던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oer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2018: KCYPS 2018)」의 자료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논문은 서론을 포함하여 5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논의하고,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방법, 자료 수집을 기술한다. 4장에서는 실증연구의 결과를 서술하고 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토론한다.

2. 이론적 논의

2.1 부모의 양육태도

Becker[9]에 따르면, 부모(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을 지칭하는 개념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인지발달(언어적·사회적·지적) 그리고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양육태도에 관해 정의하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었는데 대체로 유사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Fishbein & Ajzen[10]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

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자 문화의 양식으로서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으로 정의하였다. 양문현[11]은 양육태도는 가족의 구성과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깊은 관계를 가지며 양육하는 부모 자신의 성격, 정서, 가치관, 신념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조용주·최홍일[12]은 가정이란 자녀가 태어나 최초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환경이자 최초 교육의 장으로서, 부모 또는 양육자가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자녀의 심리·인지적 발달을 통한 전반적인 성장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정의하였다.

양육태도는 학자들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요인으로 구성된다. Baumrind[13]는 부모-자녀의 관계에 있어 권위주의적 유형(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정·이해 그리고 방향성 제시), 독재적 유형(자녀에 대해 처벌적이고 강요하며 애정이 없는 경우), 허용적 유형(자녀에 대한 애정은 있으나 통제가 결여되며 방임적인 성향의 경우)으로 양육태도를 구분 지었다. 또한 Schaefer[14]는 자율과 통제 대 애정과 거부 모형 제시를 통해 양육형태에 따라 자녀의 인격 형성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타나거나 저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연구의 경우 이종승·오성심[15]은 Schaefer[14]가 제시한 양육태도의 구성에 성취와 비성취, 합리와 비합리의 구분을 추가하여 4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허묘연[16]은 8개의 요인(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밀관성, 학대, 방임)으로 양육태도를 구분 지었다. 이렇듯 양육태도는 여러 하위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 유형과 긍정적 유형으로 구분되며 양육 유형에 따라 자녀의 인격, 인성, 인지 형성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

청소년 비행이란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범주화되었지만 대체로 청소년이 사회에 반하는 미성년자로서 지켜야 할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또는 법에 규정된 행위로 볼 수 있다[17].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보급됨에 따라 청소년 비행은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음주, 흡연, 폭행·성폭행 등의 오프라인 비행과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해킹, 도용, 불법 복제 및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비행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양돈규[18]는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에 대해 사회적·법률적·도덕적·교육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위반되는 행동

으로서 음주, 흡연 그리고 금지된 장소에의 접근 등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행동에서부터 형법상 규정되어있는 강도, 강간,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동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김준호·이동원[19]는 가출, 무단결석, 음주, 흡연 등 위법은 아니나 바람직하지 못한 지위비행과 성비행(성매매, 원조교제 등), 재산비행(타인의 금품과 관련된 갈취 및 훼손), 폭력비행(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을 통해 의도적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으로 오프라인 청소년 비행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온라인 비행의 경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정의와 유형 구분은 없고,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매체의 활용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전개되는 청소년의 비행을 통칭한다[20]. 김경호·차은진[21]은 음란채팅·음란물 게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타인 주민등록번호·ID 무단사용, 해킹,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을 온라인 비행으로 보았다. 청소년 온라인 비행이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폭력·성폭력으로 간주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기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을 사회규범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나아가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온라인·오프라인 행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본다.

2.3 청소년 정서문제

정서는 자신이 속한 집단 내에 구성원들과 관계구성을 통해 표현적 행동, 사고와 감정 등을 포함한 의식적 경험의 혼합체로서 기쁨, 분노, 두려움과 같은 인지활동[22]과 이를 통해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환경적 변화에 있어 아동·성인 시기에 비해 감정과 표현의 기복이 심해 과잉행동이나 폭력과 같은 공격적 성향과 아울러 우울, 위축과 같은 상반되는 성향을 동시에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에 겪는 정서적 문제에 대해 Achenbach & Edelbrock[23]은 우울, 불안, 위축, 두려움 등 자신이 지닌 욕구를 통제하고 억제하려는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집중과 같은 '외현화 문제'로 분류하였다. 이우진·박주희[24]는 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있어 내면화된 증세는 우울, 불안과 같은 증상으로서 이는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을 유발하며 외면화된 문제는 위협성·공격성·충동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행동문제로 구분하였다.

김정민·송수지[25]는 주의집중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부주의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잦은 실수, 물

건의 잦은 분실 등 인지과정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정의했다. 서미정[26]은 타인에게 물리적·언어적 행위를 통해 신체적·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공격성을 정의했다.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는 Kurdek & Krile[27]의 정의가 많이 인용되는데, 친구를 포함하는 대인관계에 있어 스스로가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외로움의 현상으로 간주된다. 이순화·허만세[28]는 우울을 즐거움의 결여, 절망감, 낮은 자존감 등의 비관적 생각으로서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보며, 이러한 증세들은 나아가 식욕감퇴, 호흡곤란, 불면증, 두통 등의 심리적 고통을 신체화시키는 증상으로 발현되기도 한다[29].

2.4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은 문자메시지, 통화 등 무선전화의 기본적인 휴대전화 기능과 더불어 컴퓨터와 같이 여러 앱을 설치하고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고기능 휴대폰을 의미한다. 스마트폰은 2000년대에 들어서며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보급률은 매년 급속도로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왔다. 스마트폰은 휴대가 간편하며 오락, 뉴스, 업무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의 편의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역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마트폰 의존이란 스마트폰 사용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며 떨어져 있을 경우 불안감을 가지는 심리적 의존으로 정의된다[30].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심한 경우 과의존 또는 병리적 의미가 강한 중독으로 보기도 한다. 스마트폰 의존은 ‘조절실책(사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 감소)’, ‘현저성(개인의 삶에 있어 어떠한 형태보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경우)’, ‘문제적 결과(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의 특징을 갖는다[31].

2.5 선행연구

각 변수들 간의 잠재적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고찰될 수 있다. 첫째,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온라인·오프라인 비행 간의 관계는 사회통제이론과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둔다. 사회통제이론은 자녀가 부모, 선생님, 친구집단과의 유대관계를 통한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이 억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3], 개인이 강화와 처벌 그리고 타인 행동의 모델링을 통해 친사회적·반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4]과 궤를 같이 한다. 양자 간 공통점은 부모를 사회화의 일차적 매개체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Langer[32]는 종단연구를 통해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부모-자녀 간 갈등과 공격성·비행이 감소하고 자녀를 무시하거나 방임하면 청소년의 사회적 성숙과 인지적 발달이 늦어져 비행 청소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임을 입증했다. Doyle et al[33]은 부모 학대, 방임, 처벌과 같은 양육방식은 외현적, 과잉적, 공격적 행동을 보이며 비행친구와 어울려 사회에 부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됨에 주목하였다. 이상균[34]은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음을 발견하였고 원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학대 또는 거부를 당했던 경험을 제시했다. 김용석·박명숙[35]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음주,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자녀를 학대할 경우 청소년의 폭력·재산과 관련된 비행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유경[17]은 긍정적 양육태도(지지)는 오프라인 비행 가능성을 줄이는데 반해 부정적 양육태도(비일관성)는 그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밝혔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와 청소년 정서 간의 관계는 이론적 개념으로서 긴장에 기반을 둔다. Agnew[36]는 긍정적 자극이 소멸하고 부정적 자극이 발생하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비행이 일어난다는 ‘일반긴장이론’을 제시하였다. Rey & Plapp[37]의 연구는 부모의 과도한 보호 또는 애정이 결핍된 태도가 자녀의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와 더불어 겉으로 표출되는 공격성과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Overbeek et al[38]은 자녀에 대한 모친의 돌봄 부족은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하며 부친의 돌봄 부족은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박영숙·임안나[39]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방임적·학대적일수록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주며 나아가 비행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남정민[40]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양육(감독, 설명, 애정)이 역기능적 정서를 감소시켰던 반면 비일관성, 과잉 기대, 간섭 등의 부정적 양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셋째, 청소년 정서문제는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의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선행연구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Cakar & Karatas[41]는 걱정, 두려움, 위축 등 여러 부정적인 감정적 요인들로부터 발생하는 우울의 정도에 따라 비행수준의 강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사회적 위축을 기간과 강도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위축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경험이 줄어들고 위축강도가 셀수록 부정적 경험이 늘어난다는 결과가 존재한다[42]. 이정덕·장정현[43]은 청소년의 인성요인으로 간주되는 분노에 대한 조절, 배려심, 나눔,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현진·김민[44]은 부모 학대가 청소년 공격성을 증가시켜 청소년의 비행활동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한 반면, 홍성초[45]는 부모 학대가 공격성, 우울, 스트레스, 위축 등의 부정적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직접적으로 청소년 비행의 가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넷째, 인터넷 중독과는 다른 맥락인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부모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박정은[46]은 비합리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인터넷 의존도 높아지는 반면 애정적일수록 그 의존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제시했다. 정진태[47]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 경우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일 경우 애정과 자율성 등의 관계 욕구에 대한 충족을 위해 과의존(중독)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정일영[48]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과잉 간섭·기대, 비밀관성은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이며 특히 비밀관적 태도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정승민·박영주[49]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로 볼 수 있는 부모의 애착과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경험은 인터넷 중독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의존과 청소년 온라인·오프라인 비행 간 관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가상준 외[50]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네트워크 사용 비율이 증가할수록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어폭력 등의 온라인 비행이 증가하는 현상을 찾아냈다. 이고은[51]의 연구는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의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창호·이경상[52]은 소셜미디어의 사용시간이 증가할수록 사이버 불링의 피해와 사이버 비행의 행위가 늘어난다는 증거를 찾았다. 반면, 이성식 외[53]가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유아부터 성인까지 스마트폰에 대한 중독은 온라인 비행으로부터의 피해가능성을 높였으나 가해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정기[54]는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요인에 있어 인터넷 중독에 비해 휴대폰을 통

한 중독은 영향력이 미비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2.6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이론적 배경과 각 변수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과 연구모형(Figure 1)을 설정한다.

- 가설1: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의 가능성을 높인다.
- 가설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문제 가능성을 높인다.
- 가설3: 청소년 정서문제는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의 가능성을 높인다.
- 가설4: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스마트폰 의존도를 높인다.
- 가설5: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의 가능성을 높인다.
- 가설6: 청소년 정서문제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 가설7: 스마트폰 의존은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
- 가설8: 부정적 양육, 정서문제, 스마트폰 의존의 영향력은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집단이 참여 집단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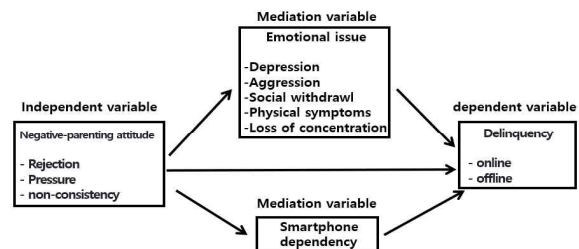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각 변수의 구체적 문항은 Appendix에서 기술된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서 거부(예: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

는지 가끔 공급할 때가 있다” 등), 강요(예: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등), 비밀관성(예: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지키지는 알 수 없다” 등)으로서, 각각 4문항씩으로 구분된다. 청소년비행은 온라인비행(예: “당사자가 원치 않은 사진, 이미지, 동영상 몰래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등)과 오프라인 비행(예: “담배 피우기” 등)으로 구분된다. 15문항으로 구성되는 빈도문항(0점=전혀 없음, 5점=1주에 여러 번)으로서 5점에 가까울수록 비행의 높은 빈도를 의미하며 변수는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구성된다. 청소년 정서문제는 리커트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주의집중(예: “칭찬을 받거나 별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등), 공격성(예: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등), 신체증상(예: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등), 사회적 위축(예: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등), 우울(예: “기운이 별로 없다” 등)로서 각 7문항, 6문항, 8문항, 5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폰 의존도 리커트 4점 척도이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3.2 자료수집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eran Children Youth Panel Study 2018: KCYPS 2018)」의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전국 162개교 2,590명을 선정할 이후 각 변수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항목 중 누락, 모름, 해당 없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2,360개의 자료가 본 연구에 활용되었다.

3.3 분석방법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AMO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각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4.2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Demographic conditions		N	%
Sex	Female	1,092	46.3
	Male	1,268	53.7
Residence	Non-capital	1,230	52.1
	Capital	1,130	47.9
Age	13	26	1.1
	14	2,323	98.4
	15	11	.5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2	24	1.0
	3	320	13.5
	4	1,333	56.5
	5 or more	683	29.0
Education of father	Under middle school	36	1.6
	High school	730	30.9
	Bachelor	1,359	57.9
	Above bachelor	235	9.6
Education of mother	Under middle school	50	2.1
	High school	830	35.2
	Bachelor	1,348	57.1
	Above bachelor	132	5.6

확인적 요인분석의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적재치 0.5이상, AVE값 0.5이상, CCR값 0.7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석 결과 표준화 적재치가 0.5 미만인 ‘거부’ 1번 문항과 ‘스마트폰 의존’ 5, 7, 10, 15번 문항의 경우 0.5 제외한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조건에 부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Variable	Estimate	Standardized estimate	S.E	C.R	CCR	AVE	
Loss of concentration	1	1.000	.588	-	-	.874	.501
	2	1.249	.721	.048	25.996***		
	3	1.277	.705	.050	25.626***		
	4	1.156	.559	.053	21.793***		
	5	1.223	.646	.051	24.192***		
	6	1.113	.587	.049	22.587***		
	7	1.052	.579	.047	22.373***		
Aggression	1	1.000	.578	-	-	.897	.595
	2	1.214	.713	.046	26.156***		
	3	1.244	.753	.046	27.047***		
	4	1.093	.694	.043	25.704***		
	5	1.088	.684	.043	25.466***		
	6	1.174	.719	.045	26.292***		
Physical symptoms	1	1.000	.744	-	-	.906	.548
	2	.852	.675	.027	32.018***		
	3	.977	.599	.035	28.216***		
	4	.968	.630	.033	29.768***		
	5	.849	.668	.027	31.692***		

	6	1.043	.766	.028	36.592***					
	7	1.071	.731	.031	34.854***					
	8	.903	.632	.030	29.9***					
Social withdrawal	1	1.000	.707	—	—	.895	.632			
	2	1.174	.821	.032	36.491					
	3	1.037	.759	.031	33.981					
	4	1.131	.815	.031	36.28					
	5	1.048	.732	.032	32.881					
Rejection	2	1.000	.814	—	—	.925	.804			
	3	1.084	.879	.024	44.708***					
	4	.994	.787	.024	40.829***					
Depression	1	1.000	.727	—	—	.946	.637			
	2	1.155	.833	.029	40.313***					
	3	1.174	.716	.034	34.377***					
	4	.933	.729	.027	35.034***					
	5	1.018	.660	.032	31.576***					
	6	1.117	.747	.031	35.946***					
	7	1.099	.746	.031	35.897***					
	8	.871	.724	.025	34.773***					
	9	.963	.722	.028	34.696***					
	10	1.075	.801	.028	38.671***					
Smart phone dependency	1	1.000	.688	—	—	.923	.522			
	2	1.014	.713	.033	31.17***					
	3	1.012	.732	.032	31.917***					
	4	.674	.600	.025	26.605***					
	6	.719	.613	.026	27.156***					
	8	.826	.618	.030	27.356***					
	9	.703	.580	.027	25.771***					
	11	.914	.644	.032	28.439***					
	12	.961	.645	.034	28.463***					
	13	.879	.610	.033	27.04***					
	14	.685	.585	.026	25.99***					
	Pressure	1	1.000	.723	—			—	.825	.545
		2	1.15	.708	.038			30.076***		
		3	1.186	.732	.038			30.897***		
4		.849	.540	.036	23.439***					
Non-consistency	1	1.000	.770	—	—	.863	.613			
	2	1.013	.748	.030	33.896***					
	3	.919	.640	.032	29.117***					
	4	1.008	.687	.032	31.28***					

4.3 상관관계

Table 3은 주요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준다. 계수 값이 모두 ±0.7 미만으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경우, 스마트폰 의존에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0.2-0.4), 정서문제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0.4-0.7) 그리고 온·오프라인 비행에는 낮은 상관관계(±0.2 미만)를 보였다. 스마트폰 의존의 경우, 정서문제와 다소 높은 상관관계(±0.4-0.7) 그리고 온·오프라인 비행에는 낮은 상관관계(±0.2 미만)를 나타냈으며 정서문제의 경우, 온·오프라인 비행과는 다소 낮은 상관관계(±0.2-0.4)를 나타냈다.

4.4 연구모형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 대한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Table 3. Correlation

	[A]	[B]	[C]	[D]
[A]	1			
[B]	.327**	1		
[C]	.479**	.489**	1	
[D]	.169**	.196**	.240**	1

** $p < 0.05$, *** $p < 0.01$

[A] Negative parenting [B] Smart phone dependency
[C] Emotional issue [D] Juvenile delinquency

판단하기 위해 모형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 적합도의 수용기준은 CMIN/DF은 수치가 낮을수록, RMSEA는 0.05-1이하, 그리고 GFI, NFI, IFI, CFI의 경우 0.9이상이어야 한다[55]. 검증결과 CMIN/DF 10.912, GFI 0.969, NFI 0.950, IFI 0.954 CFI 0.954, RMSEA 0.065로서 모형적합도가 적정수준으로 나타났다.

4.5 연구가설 검증

Table 4는 가설 1, 2, 3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여주며, Table 5는 매개변수인 청소년 정서문제와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를 보여준다. 주요변수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변수 간의 경로계수는 다음과 같다. 온·오프라인 청소년비행-하위요인(온라인 비행, 오프라인 비행) 간의 경우 각각 1.0, 0.597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하위요인(비밀관성, 강요, 거절) 간의 경우 1.0, 0.943, 0.790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정서문제-하위요인(집중력 저하,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간의 경우 각각 1.0, 1.384, 1.513, 1.117, 1.555로서 주요변수와 하위변수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4.5.1 가설 1-7 검증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온·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경로계수는 0.228로서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변수 간의 경로계수는 0.403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서문제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경우에 대한 각 변수 간의 경로계수는 0.799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변인 간의 경로계수의 값은 0.177의 정(+)의 효과를 나타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경로계수는 0.215로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가설 1, 2, 3, 4, 5의 경우 채택되었다.

Table 4. Hypothesis test 1-7

Path coefficient	Estimate	S.E.	C.R.
emotional issue ← negative parenting	.403	.023	17.827***
delinquency ← emotional issue	.799	.142	5.626***
smart phone dependence ← negative parenting	.177	.041	4.331***
delinquency ← smart phone dependence	.215	.037	5.806***
delinquency ← negative parenting	.228	.094	2.412***
non-consistency ← negative-parenting	1.000	-	-
pressure ← negative parenting	.943	.033	28.289***
rejection ← negative parenting	.790	.031	25.406***
loss of concentration ← emotional issue	1.000	-	-
aggression ← emotional issue	1.384	.047	29.356***
physical symptoms ← emotional issue	1.513	.062	24.550***
social withdrawl ← emotional issue	1.117	.053	20.983***
depression ← emotional issue	1.555	.063	24.764***
online ← delinquency	1.000	-	-
offline ← delinquency	.597	.063	9.477***
n	2,360		

가설6에 해당하는 청소년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청소년 정서문제-청소년 비행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며 0.322로 정(+의) 간접효과를 나타내며 직접효과는 0.228, 총 효과는 0.550으로서 청소년 정서문제는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7에 해당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검증의 경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청소년 비행 간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며 0.038로 정(+의)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직접효과 역시 0.228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총 효과는 0.266이므로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은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1, 2, 3, 4, 5, 6, 7은 모두 채택되었다.

Table 5. Mediation effect tes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art phone depedency	.228	..038	.266
Emotional issue	.228	.322	.550

4.5.2 가설 8 검증

앞서 설정한 가설 1부터 가설 7이 문화활동 참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8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변수인 문화활동 참여도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 이하는 '낮은 집단', 평균 이상은 '높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Table 6. Unconstrained group model path analysis

Path coefficient	Low		High	
	Estimate	C.R.	Estimate	C.R.
emotional issue ← negative parenting	.373	13.702***	.429	10.946***
delinquency ← negative parenting	.635	3.481***	1.166	5.079***
smart phone dependence ← negative parenting	.161	3.139***	.186	2.746***
delinquency ← smart phone dependency	.197	4.561***	.259	3.906***
delinquency ← negative parenting	.213	1.884*	.215	1.334
non-consistency ← negative parenting	1	-	1	-
pressure ← negative parenting	.948	22.802***	.947	16.55***
rejection ← negative parenting	.835	20.85***	.719	14.38***
loss of concentration ← emotional issue	1	-	1	-
aggression ← emotional issue	1.498	21.53***	1.257	19.264***
physical symptoms ← emotional issue	1.641	18.119***	1.412	16.14***
social withdrawl ← emotional issue	1.203	15.62***	.995	13.543***
depression ← emotional issue	1.72	18.32***	1.385	16.074***
online ← delinquency	1	-	1	-
offline ← delinquency	0.697	7.188***	.503	6.356***
n	1,425		935	

집단별 경로계수의 유의성, 비제약(unconstrained) 모형과 제약(constrained) 모형의 측정동일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Table 6은 비제약모델에 대한 집단분류를 통한 각 변수 간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두 집단은 청소년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를 제외한 부정적 양육태도-청소년 정서문제, 청소년 정서문제-청소년 비행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청소년 범죄 간의 경로는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미쳤으며 전반적으로 문화 활동 참여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모든 경로계수 값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7의 경우 제약모델에 대한 집단분류를 통한 각 변수 간 경로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제약모델의 경우 각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정(+)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Constrained group model path analysis

Path coefficient	Low		High	
	Estimate	C.R.	Estimate	C.R.
emotional issue ← negative parenting	.392	17.489***	.392	17.489***
delinquency ← negative parenting	.871	6.061***	.871	6.061***
smart phone dependency ← negative parenting	.169	4.142***	.169	4.142***
delinquency ← smart phone dependency	.216	5.913***	.216	5.913***
delinquency ← negative parenting	.197	2.108**	.197	2.108**
non-consistency ← negative parenting	1	-	1	-
pressure ← negative parenting	.962	23.169***	.922	17.053***
rejection ← negative parenting	.849	21.111***	.7	14.664***
loss of concentration ← emotional issue	1	-	1	-
aggression ← emotional issue	1.49	23.534***	1.262	20.5***
physical symptoms ← emotional issue	1.625	20.107***	1.426	17.599***
social withdrawal ← emotional issue	1.188	16.824***	1.009	14.328***
depression ← emotional issue	1.701	20.403***	1.401	17.518***
online ← delinquency	1	-	1	-
offline ← delinquency	0.652	8.317***	0.517	5.069***
n	1,425		935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 간 모형 적합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모델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증 결과는 Table 8과 같으며 가설 8은 채택되었다.

Table 8. Multiple-group model comparison

Model	NPAR	CMIN	DF	P	CMIN/DF
Unconstrained	56	451.138	76	.000	5.936
Measurement weights	48	465.489	84	.000	5.542

5. 결론

스마트폰 등장 이전의 맥락인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의 오프라인 비행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나, 청소년층에서의 스마트폰 보급·활성화 시대에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청소년 비행의 보다 근본적 원인인 부모 양육, 개인 정서로부터의 직접적 인과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영향이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에 의해 완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핵심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거부감, 강요, 비밀관적인 태도의 정도가 강하다고 느낄수록 청소년들은 현실세계에서 폭행, 집단 따돌림, 담배 등의 가벼운 지위비행에서부터 범죄에 가까운 오프라인비행(현실비행)과 불법 소프트웨어·음란물 유포, 해킹, 도용 등의 온라인 비행(가상현실 비행)으로 직접 표출한다.

둘째,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증폭된다. 다시 말해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우울, 사회적 위축과 같은 청소년 정서의 내재화(심리적) 문제를 증가시킨다. 심리적 고통은 나아가 공격성 증가, 집중력 저하, 신체적 문제(식욕감퇴, 불면증,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가와 같은 외현화를 유발한다. 부정적 정서는 청소년의 온라인 비행과 오프라인 비행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매개효과를 갖는다.

셋째, 전반적인 부정적 양육태도를 강하게 인지할수록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일상생활에 대한 장애 발생, 가상세계에 대한 지향성이 증가하게 되며 나아가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의 개연성이 커진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에 비해 매개효과의 강도는 낮으나, 청소년의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을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넷째, 문화활동 참여도(고저)에 따른 집단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문화활동에 참여할수록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와 스마트폰 의존이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켜 간접적으로 온·오프라인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ktinson & Robson[6] 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문화예술 참여 활동의 자아 형성, 정서 함양, 사회화 과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는 다소 상반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김인설 외[8], 이명우 외[56] 등의 연구와 같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측정기준(만족도, 빈도, 범주,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유추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인성과 행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필수불가결

한 매체인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 비행의 잠재적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할 수 있음을 밝혀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청소년기는 감정기복이 심하며 자아통제성이 약하여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쉽게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스마트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자아 통제를 상실한 과도한 의존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청소년 비행의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녀의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교육,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갈등 해결을 위한 가족 상담프로그램, 치료 등의 개인적인 노력과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와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완화 및 개선을 위해 자신과 가까운 유대관계(부모, 또래집단, 학교 등)와의 잦은 대화와 접촉 그리고 온라인·오프라인 비행활동 감소와 억제 그리고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감소를 위해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조성도 요구된다.

또한 정부 및 관련 유관기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부모와 청소년들의 니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더불어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며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부정적 양육태도, 정서문제,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의 완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제공자(유관기관)와 수혜자(청소년, 부모) 간의 부단한 소통이 지속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데이터의 경우 매년 추적 조사를 해오던 KCYPS 2010이 종료된 이후 새로 시작된 데이터로서 KCYPS 2018 이후의 데이터는 조사되지 않아 중학교 1학년 이후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 또는 성인보다 감정 변화가 큰 시기에 해당하므로 중학교 1학년 외에도 고등학생에 대한 표본 추가 등 청소년기의 표본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설문문항 외에도 객관적, 주관적 변수의 추가를 통해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N. Y. Kim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Refugees.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2] Statistics Korea (2019). <http://kostat.go.kr>
- [3] Hirschi, T. (1969). A contro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Theory: Selected Classic Readings*, pp. 289-305.
- [4]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5] Gottfredson, Michael,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6] Atkinson, S., & Robson, M. (2012). Arts and health as a practice of liminality: Managing the spaces of transformation for social and emotional wellbeing with primary school children. *Health & place*, 18(6), 1348-1355.
- [7] Davidson, J., & Bailey, B. (2007). Psychological and physical benefits of participation in vocal performance. In *Music: Promoting health and creating community in healthcare contexts*. Newcastle, UK: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 [8] I. S. Kim ·D. Jung & J. S. Lee. (2014). Effects of arts & cultural activities on the emotion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 empirical study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8(1), 224-251.
- [9]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4), 169-208.
- [10] Fishbein, M & leek Ajzen.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 Wisley.
- [11] M. H. Yang (1983). *A Study on Child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Marriage Satisfaction of Urban Housewives*, Master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12] Y. J. Cho & H I Choi (2015). A study on effect of parenting practice on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and peer attach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30, 47-70.
- [13]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14]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6), 552.
- [15] J. S. Lee & S. S. Oh.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s' parenting style and affective characteristics. *Korea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Bulletin*, RB-11(1).
- [16] M. Y. Huh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Doctoral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 [17] Y. K. Lee. (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ing styles on adolescents offline crime and cyberbullying:*

[1] N. Y. Kim (2012). The Effect of Perceived Stres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North Korean

- Ba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smartphone dependenc.* Master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18] D. K. Yang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ensation seeking,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Internet-relate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20), 117-136.
- [19] J. H. Kim & D. W. Lee (1996). *A study on strain and juvenile delinquency*. Seoul, Korea: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20] J. W. Lee · S. R. Lee & Y. M. Jung. (2016). *Comprehensive survey on contact with harmful environment for youth.* Seoul,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1] K. H. Kim & E. J. Cha. (2012).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cyber delinqu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ethic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2), 364-401.
- [22] M. K. Park. (2017). *Effect of Adolescent Socioemotional Problems on Delinquency Behavior through the Mediation of Social Relations: Verification of Longitudinal Effect Using Latent Growth Modeling*. Doctoral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 [23]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24] Y. J. Lee & J. H. Park. (2019).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on social anxiety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moderating role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Korean Journal Child Studies*, 40(10), 39-50.
- [25] J. M. Kim & S. J. Song. (2014). The moder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levels in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5(1), 5-27.
- [26] M. J. Seo. (2008). Participation in bullying: Bystanders` characteristics and role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79-96.
- [27] Kurdek, L. A., & Krile, D. (1982). A developmental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peer acceptance and both interpersonal understanding and perceived social self-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3(6), 1485-1491.
- [28] S. H. Lee & M. S. Hoe (2015). The analysis of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linquency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Welfare*, 17(2), 241-264.
- [29] J. Y. Cho & I. S. Oh.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changes in experience, and emotional factors, *Studies on Korean Youth*, 25(4), 301-323.
- [30] H. S. Kim. (2019).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onding Social Capital and Career Identity of Adolescents: The Mediation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Doctoral dissertation, Sahmyook University.
- [31]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8). <http://www.nia.or.kr>, <http://www.msit.go.kr>.
- [32] S. H. Carson, & E. Langer.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on & Cognitive-Behavior Therapy*, 24(1), 29-43.
- [33] Doyle, A. B. & Markiewicz, D. (2005) . Parenting, marital conflict and adjustment from early to mid-adolescence: Mediated by adolescent attachment styl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2), 97-110.
- [34] S. K. Lee. (2012).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delinquent behavior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6, 157-185.
- [35] Y. S. Kim & M. S. Park. (2000). Parenting as a common factor to adolescents` problem behaviors. Focusing on adolescents` drinking and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2, 83-106.
- [36]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 [37]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82-385.
- [38] Scholte, R. H., Engels, R. C., Overbeek, G., De Kemp, R. A., & Haselager, G. J. (2007). Stability in bullying and victimization and its association with social adjust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2), 217-228.
- [39] Y. S. Park & A. N. Lim (2017).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ed on mediated effect of depression.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49, 59-85.
- [40] J. M. Nam. (2016). *Effects of Positive Parenting, Negative Parent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Juvenile Delinquency: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ognitive Clarity and Maladaptive Emotion Regulation*. Doctoral dissertation. Daegu Catholic University.
- [41] Savi Cakar, F., & Karatas, Z. (2012). The self-esteem,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hopelessness in adolescents: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ducational Sciences: Theory and Practice*, 12(4), 2406-2412.
- [42] Y. J. Cho· H. W. Ju & M. H. Hyun. (2015).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6(2), 59-81.

- [43] J. D. Lee & J. H. Jang. (201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of school violence: Focusing on personality factors, *Korean Security Science*, 42, 393-422
- [44] H. J. Kim & M. Kim(2016). The effect of parental abuse on adolescent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5), 97-122.
- [45] S. C. Hong.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and Delinquency: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Emotion*. Master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46] J. E. Park (2001). *A Study on Effective Variable of the Addictive Usage of the Internet by Adolescents*. Master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47] J. T. Jung. (2003). *The Effects of Parents' Rearing Attitude on the Internet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 [48] I. Y. Jeong. (201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adolescent's mobile phone addi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and school adjustment,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of Korea*, 42, 87-118.
- [49] S. M. Jung & Y. J. Park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home-environment and school-environment and Internet addiction on the adolescents' violence delinquenc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1(3), 271-300.
- [50] S. J. Ga, K. M. Kim, & J. H. Lim. (2013). The effect of common use of SNS on bullying and cyberbullying of the adolescent,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1(1), 159-208.
- [51] K. E. Lee (2014). *A Study of Factors that influence Cyber Violence Behavior on Adolescents :Apply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ocial learning Theory*. Master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52] C. H. Lee & K. S. Lee (2013).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 bullying by youth: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259-285.
- [53] S. S. Lee · E. Y. Kang& S. H. Choi (2015). The effect of smart phone addiction on cyber delinquency.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9(2), 69-102.
- [54] J. K. Lee. (2011). A study on dispositional mobile phone use motives, mobile phone addiction, and mobile phone verbal bullying of adolescents: With a focus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2), 365-401.
- [55] G. S. No. (2019). *The proper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for dissertation SPSS & AMOS*. Seoul, Korea: Hanbit academy.
- [56] M. W. Lee, Y. M. Hong, & K. W. Yoon. (2016). Impacts of leisure activities on individual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Cultural Policy*, 30(2), 264-287.

Appendix. Measurement Items

Offline juvenile delinquency

- 1) “담배 피우기”, 2) “술 마시기”, 3) “무단결석”, 4) “가출”,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6)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왕따)”, 7) “꽤싸움”, 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9) “다른 사람 헐박하기”, 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2) “성관계”, 13) “성폭행이나 성희롱”, 14) “돈을 걸고 도박하기”, 15) “심한 욕설과 폭언”

Online juvenile delinquency

-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3)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말, 글, 그림 등을 보내 스토킹한 적이 있다”, 4) “당사자가 원치 않는 사진, 영상, 이미지, 동영상 보내거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 5) “다른 사람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계정을 만들거나 사이버상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있다”, 6) “누군가의 개인정보(이름, 나이, 학교, 전화번호 등)를 인터넷에 올리는 신상털기를 한 적이 있다”, 7) “게임머니,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 돈을 뺏은 적이 있다”, 8) “와이파이 셔틀이나 핫스팟 셔틀(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게 시키는 것)을 시킨 적이 있다”, 9)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글이나 말,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낸 적이 있다”, 10) “인터넷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싫다는데 반복적으로 초대할 적이 있다”, 11) “일부러 시비를 걸어 상대방이 먼저 욕하게 하거나 성격에 문제 있어 보이게 유도한 적이 있다”, 12)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시키거나 (담배)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1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격글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1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15) “대화방에 일부러 상대방을 초대하지 않거나 댓글이나 말을 무시한 적이 있다”

Emotional issue - loss of concentration

- 1)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진다”, 2)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잊지 않는 편이다”, 3)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4) “연필이나 지우개 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5)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6)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7)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Emotional issue - aggression

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4)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Emotional issue - physical symptom

1)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2) “머리가 자주 아프다”, 3) “속이 자주 메스거린다”, 4)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5)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6) “자주 피곤하다”, 7)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8)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Emotional issue - social withdrawl

1)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2) “부끄럼을 많이 탄다”, 3)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4) “수줍어 한다”, 5)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 한다”

Emotional issue - depression

1) “기운이 별로 없다”, 2)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3) “걱정이 많다”, 4)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5) “울기를 잘한다”, 6)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7) “외롭다”, 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8)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9) “모든 일이 힘들다”

Negative parenting - non-consistency

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Negative parenting - rejection

1)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2)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3)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4)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Negative parenting - pressure

1)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2)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3)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4)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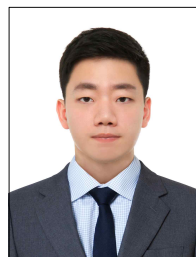
Smart phone dependency

1)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학교성적이 떨어진다”, 2)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3)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 4)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집중이 안 된 적이 있다”, 5) “스마트폰 사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6)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온 세상을 잃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7)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 즐겁다”, 8)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9)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 하고 초조해진다”, 10) “스마트폰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다”, 11)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하루종일 일(공부)이 손에 안 잡힌다”, 12)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해보았지만 실패한다”, 13)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계속 한다”, 14)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15)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출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전 영 준(Youngjun Jeon)

[정회원]



· 201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석사)
· 2019년 3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 관심분야 : 산업정책, 기업가정신
· E-Mail : pretec90@naver.com

남 태 우(Taewoo Nam)

[정회원]



· 2012년 8월 : 뉴욕주립대학교(행정학박사)
· 2013년 3월 ~ 2016년 8월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전자정부, 정부혁신

· E-Mail : namtaewoo@skku.edu